

‘리니지 잡아라’ 게임업계 신작 전쟁 서막 올랐다

넥슨 14일 ‘카운터사이드’ 공개예정 넷마블 ‘A3’, ‘제2의나라’ 속속 출시 위메이드 ‘미르의전설’ 활용 신작3종 네오위즈 ‘위드 히어로즈’ 사전예약

게임 업계가 새해를 맞아 신작 준비에 몰두하고 있다. 탄탄하거나 새로운 지식재산권(IP) 기반의 신작으로 올해 포문을 열고 ‘리니지’에 대항할 전열을 다듬고 있다.

6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넥슨은 올해 자체 IP를 통해 변화 모멘텀을 노린다. 올해 넥슨은 자사 장기 인기 IP인 ‘바람의 나라’, ‘던전앤파이터’, ‘마비노기’, ‘카트라이더’를 활용한 모바일 신작을 내놓는다.

이정현 넥슨코리아 대표는 신년사를 통해 “2020년은 넥슨의 앞으로 10년을 결정지을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며 “신작들을 갈고 닦아서 앞으로의 10년을 준비해보려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최종 비공개 시범 테스트(CBT)를 한 ‘바람의 나라: 연’은 넥슨의 온라인게임 ‘바람의 나라’ IP를 모바일



‘A3 스틸얼라이브’ 대표 이미지.

/넷마블

로 구현한 MMORPG로, 이르면 올해 상반기 내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중국에서 캐시카우 역할을 해온 ‘던전앤파이터’와 추억의 게임으로 불리는 ‘마비노기’, ‘카트라이더’도 연내 출시를 목표로 막바지 담금질을 하고 있다.

신규 IP를 활용한 신작도 있다. 넥슨은 오는 14일 미디어 쇼케이스를 열고 현실 세계 ‘노말사이드’와 반대편 세계 ‘카운터사이드’의 전투를 그린 어반 판

타지 역할수행게임(RPG) ‘카운터사이드’를 소개할 계획이다.

넷마블도 오는 22일 신작 MMORPG ‘A3: 스틸얼라이브’의 쇼케이스를 예고했다. A3: 스틸얼라이브는 넷마블의 PC 게임 ‘A3’ IP를 기반으로 최후의 1인을 가리는 서바이벌 방식을 적용했다. 이와 함께 자사 인기 게임 ‘세븐나이츠’ IP 게임인 ‘세븐나이츠2’와 애니메이션 같은 그래픽과 스토리를 앞세운 모바일 MMORPG인 ‘제2의 나라’도



‘바람의 나라: 연’ 이미지.

/넥슨

연내 출시할 방침이다.

위메이드는 ‘미르의전설’ 기반 IP를 활용한 신작 3종 ‘미르4’, ‘미르W’, ‘미르M’을 연내 선보인다. 컴투스도 자사 ‘서머너즈워’ IP 기반 신작 ‘서머너즈워 MMORPG’와 ‘서머너즈워: 백년전쟁’ 등의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각각 자사 대표 IP를 기반으로 한 신작으로 국내 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흥행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네오위즈도 모바일 신작 캐주얼 RPG

‘위드 히어로즈’의 사전 예약을 시작했다. 위드 히어로즈는 이순신, 벤토벤, 나폴레옹 등 전 세계 역사와 신화 속 캐릭터 100여 종이 등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업계 관계자는 “새해를 맞아 게임사들이 다양한 종류의 신작을 선보이고 있다”며 “강력한 IP 기반 신작이 ‘리니지’ 형제가 주도하고 있는 게임 시장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봉고3’도 전기차 합류... 기아차 첫 전기트럭

완충까지 54분, 211km 주행

봉고3도 전기 심장을 갖게 됐다. 기아자동차는 6일 봉고3 EV를 출시하고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브랜드 첫 전기 트럭으로, 보조금을 제외한 가격은 GL 4050만원, GLS 4270만원이다.

봉고3 EV(사진)는 완충시 211km를 주행할 수 있다. 135kW 모터에 58.8kWh 배터리를 탑재해 강력한 성능을 자랑한다. 100kW급 충전기를 사용하면 완충까지 54분이면 가능하다.

첨단 기술도 적용됐다. 적재 중량을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어 과적을 예



방할 수 있다. 제동시에는 배터리를 충전하는 회생 제동 기능도 탑재했다.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과 버튼 시동,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도 전 트림에 기본 적용한다. ‘전방충돌방지보조(FCA)’와 ‘차로이탈방지보조(LKA)’, ‘운전자주의경고(DAW)’ 등 안전사양 역시 선택할 수 있다.

적재 편의도 높였다. 평바닥 옵션으로 적재고를 낮추고 바닥을 평평하게 만들어준다. 공영주차장 요금과 고속도로 통행료도 할인 받을 수 있다.

기아차 관계자는 “봉고3 EV는 도심 운송에 최적화된 전기 트럭으로 도시 환경에 적합한 주행거리와 충전 시간, 소형 상용 EV 특화 신기술을 보유했다”며 “구매 보조금과 합리적인 유지비 등 기존 디젤차 대비 높은 경제성과 전동화를 기반으로 한 정착성으로 소형 트럭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현대·기아차 “설명절, 차 무상대여해드려요”

현대·기아자동차가 설 연휴간 차량 215대를 무상 대여한다.

현대·기아차는 6일부터 17일까지 각각 홈페이지에서 설 명절 시승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차량이용 기간은 현대차가 23일부터 29일까지 6박7일, 기아차가 23일부터 28일까지 5박 6일이다. 당첨 결과는 각각 17일과 21일 공지한다.

현대차는 쏘나타와 쏘나타HEV ▲베뉴 ▲코나 ▲코나HEV ▲투싼 ▲싼타페 ▲팔리세이드 등 250대를 준비했다. 기아차는 3세대 K5와 ▲K7 프리미어 20대 ▲THE K9 20대 ▲스팅어 10대

등 150대다.

참여조건은 만 21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중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K9과 스팅어는 만 26세 이상으로 제한했다.

기아차는 시승이 끝난 후 SNS에 후기를 작성하면 30명을 선정해 국민관광상품권도 증정한다. 이벤트 페이지에서 추천인을 입력하면 20명에 3세대 K5 3박 4일 시승 기회를 추가해준다.

기아차는 ‘초록여행 귀향 지원 이벤트’를 통해 중증장애인 15가구에 카니발 이지무브 차량과 유류 완충, 여행 경비 등 혜택을 준다.

/김재용 기자

소형도 중형도 아닌 트레일 블레이저·XM3

쉐보레, 르노삼성

공간 활용에 효율까지 챙겨
가격 경쟁 확보 난망 지적도

‘애매한’ SUV가 시장 다크호스로 떠올랐다. 소형 SUV와 중형 SUV 사이에서 잠깐만 흡수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전망이지만, 가격 경쟁력 확보는 문제로 지적된다.

6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쉐보레는 오는 16일 트레일 블레이저를 국내에 본격 출시할 예정이다.

트레일 블레이저는 한국지엠이 주도해 개발한 야심작이다. 부평 1공장에서 생산하며, 국내 자동차 수출을 주도했던 트랙스를 뒤이을 모델로 평가받는다.

트레일 블레이저는 다소 독특한 크기로도 주목을 받았다. 전장이 4400mm대로, 4200mm대인 콤팩트 SUV보다 크고 4600mm대인 중형 SUV보다는 작아서다.

이같은 크기 SUV는 이미 시장에서 높은 인기를 끌며 상품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메르세데스-벤츠 GLA와 볼보 XC40이 대표적이다. 럭셔리 브랜드의 엔트리급 소형 SUV로 ‘가성비’를 갖춘 모델로 각광받았다.

단, 트레일 블레이저는 아직 공식적으로 차급을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소형 SUV 중에서는 큰 편인 트랙스(전장 4255mm), 중형 SUV 중에서는 작은 편인 이퀴녹스(전장 4650mm) 사이에 위치해 있는 탓에 명확한 포지션을 정하기 쉽지 않다는 전언이다.

중형 SUV인 현대차 투싼과 비슷한 크기이지만, 콘셉트로만 보면 같은 급으로 보기 어렵다. 투싼이 중



르노삼성이 ‘2019 서울모터쇼’에서 공개한 XM3 INSPIRE 쇼카.

형 SUV를 모티브로 했다면, 트레일 블레이저는 소형 SUV에 더 가까운 외관을 갖고 있다. 준중형급 공간활용성을 그대로 가져가면서도 소형 SUV의 스포티와 효율까지 챙긴 모습이다.

성능으로 보면 소형 SUV라고 부르는 것은 어렵다. 트레일 블레이저는 중형 세단인 말리부에서 호평을 받았던 1.35ℓ 가솔린 터보 엔진을 장착한다. 최고출력 156마력에 최대토크 24.1kg·m으로, 업계 최고 수준인 9단 변속기를 장착할 가능성도 거론되는 상황이다.

르노삼성자동차도 XM3로 애매한 차급 시장에 뛰어들 예정이다. XM3는 글로벌 ‘아르카나’와 뼈대를 공유하는 모델로, 전장도 4500mm대로 예상된다. 출시를 앞둔 르노 신형 캡처(전장 4227mm)와 중형 SUV QM6(전장 4675mm)에 위치하는 SUV다. 마찬가지로 1.3ℓ 가솔린 터보 엔진을 탑재해 소형 SUV를 넘어서는 성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국내에서는 전장 4375mm인 기아차 셀토스가 폭발적인 판매량으로 시장을 뒤흔든 바 있다. 지난해 5개월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 북미모델.

여만에 4만5454대를 팔아치우며 최고 인기 SUV로 자리매김했다. 소형 SUV와 중형 SUV 판매량까지 흡수했으며, 글로벌로도 인기를 이어나갈려는 모습이다.

문제는 가격이다. 셀토스가 2000만원대 초중반인데, 쉐보레 트랙스와 르노삼성 QM3가 이미 2000만원 초반대에 판매중인 만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새로 출시될 SUV가 성능과 효율성에서는 셀토스와 비슷하거나 더 나은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소비자를 설득할만한 가격을 제시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평했다. /김재용 기자 juk@